

조국수호의 최전방을 지켜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료로 원호

병사들 뒤에는 인민이 있다

내 조국은 무엇으로 굳건한 것인가.
우리 혁명은 장구하고도 영광에 찬 행로에서 무엇을 원동력으로, 밑뿌리로 하여 승승장구 하여올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듯 선군으로 빛나고 선군으로 승리해가는 내 조국 땅에 하나의 숨결, 군민대단결의 숨결이 높여주고 있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 인민군인민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그대로 체현한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국가건설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르며 우리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료로 원호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원군은 우리 인민의 시대적 원군으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
저 멀리 백두산기슭의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산마을에 이르러까지 나라의 어느곳에 가보아도 군대에 대한 인민의 친혈육

의 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고 초소의 병사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원군이 평범한 가정들의 가정으로 되고 사회의 미풍으로 발양되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돌아보면 선군조선의 원군력사는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시작되고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유격구를 피로써 사수한 소항청인민들의 투쟁정신, 불비철어지는 전진길을 뚫고 싸우는 고지로로 탄약을 이고지고 오르는 남강유격대원들과 속사리인민들의 원군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살아숨쉬고있으며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고 있다.
병사들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며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고난과 시련에서도 군대를 먼저 생각하며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병사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혈육의 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례는 참으로 많다.
지난해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는 단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군사임무수행중 사정에서부터 시작된 화폭이 피부 이식수술이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해주의학대학 학생 배수심명과 수많은 교원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수술장 앞쪽에는 인민군인들이 먼저 와있었다. 군인들모두가 귀중한 전수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어 달라고 의뢰인민들에게 절절히 말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대학생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군인들을 밖으로 떠밀며 자기들의 심정을 타놓았다.
《군인들의 피부를 단 한점이라도 떼어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병사에게 필요한 피부는 우리가 다 달았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진정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목격할수도 체험해볼수도 없는 아름다운 화폭이었다.
이런 가슴뜨거운 화폭은 황해남도에서 아닌 강원도와 자강도에서도 이나 나라 방방곡곡에서 대대같이 펼쳐지고 있다.
군대를 돕고 군대를 위하는 미풍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려져 있는가 하면 현실을 대할 때마다 이 땅에 군민대단결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정력적인 평도

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들이켜보게 된다.
주제 91(2002)년 11월 우리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원군미용일성대회로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원군미용일성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셨다. 원군사업에 앞장서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우리의 혁명투쟁과 나라의 안전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전사,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한 축하문의 구절구절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대회참가자들이 자기 일터로 떠나간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도 주교실은 사랑을 못다 주신듯 참가자들을 다시 부르도록 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가득 안겨주셨다. 위대한 선군혁명의 크나큰 믿음과 은총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억세게 새겨주었다.
지금도 마시령전역에 수놓아졌던 원군의 감동깊은 화폭이

눈앞에 이른다.
전국의 수많은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마시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원호하였으며 각지에서 달려온 근로자들과 예술인들은 건설장이 들썩하게 경제선동, 예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군민대단결, 원군열풍으로 온 마시령스키장이 활기차게 일어났다. 군인건설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용격속도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원군열풍은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날로 뜨거워지는 원군의 숨결은 그대로 우리 군대의 일당백기상으로, 대고조선군의 최대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기수인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인민군인민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격전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뿐만아니 일떠세우고 아야할 것이다.

공민이 된 민을 자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에 대한 인민의 혈육의 정이 날을 따라 뜨거워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심랴면으로 원호하며 한전호에서 싸워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인민군인들을 친부모, 친혈육의 정으로 원호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인들을 찾아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자애로운 영성을 뜨거운 감동속에 우리르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원수님의 뜻으로 애국애군을 다짐하고 있다.
많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뜻깊은 견학, 전승절을 비롯하여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을 맞으며 인민군인들

에 대한 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들은 항일전의 불꽃속에서 창조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꽃피어 이어져온 원군미풍을 대를 이어 활짝 꽃피워나갈 불같은 열의를 원호물자마다에 담아 절세유일들의 발자취가 깃들여 있는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한덕수평양군공업대학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 위한 원군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쳐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수 있다는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군인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수많은 생활용품과 체육기구를 넘겨주면서 제국주의를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드는 길에 앞장서줄것을 부락하였다.
해산농림대학과 사리원공업대학, 정주대학교사범대학, 함흥대학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도 여러 계기마다에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건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에 참가하여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성심성의료로 원호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 있다.
대학책임일군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찾아 많은 원호물자도 안겨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기 위해 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직원, 연구자들은 교육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안고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성의껏 원호하고 있다.
전기공학부와 기계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도 훌륭한 과학자 및 기술자를 안고 건설사업의 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투쟁을 고무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수도의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자살림집건설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각지의 당조직들과 기관, 기업소,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도장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가 불같은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먼저 찾고 싶어 걷는 길

온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홍춘애동무와 가정
위대하며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온천군 읍 17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홍춘애동무의 원군열풍은 평안남도의 어느 한 군에서 처지시절을 보내던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군인들이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건설장으로 향할 때면 그는 저도모르게 그들의 발걸음에 자기의 보폭을 맞추며 일터로 향하곤 하였다.
저 미려한 병사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나.
그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일을 마치면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먼식이 생겨도, 생활필수품이 하나 차체져도 그는 군인들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런 마음은 날이 커갔다.
몇해 전 원군의 날에 낫을 익힌 한 제대병사가 홍춘애동무의 집에 들어왔다.
그는 군사부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병사들을 위해 바친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격정을 담아 이야기하고나서 되돌아왔다. 그는 집을 나서서도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차녀를 향해



◇ 뜨거운 지성을 바쳐 ◇
평천구역 봉화동 71인민반 김철수동무의 가정에서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준 원호물자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있다.
◇ 뜨거운 지성을 바쳐 ◇
평천구역 봉화동 71인민반 김철수동무의 가정에서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준 원호물자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있다.
◇ 뜨거운 지성을 바쳐 ◇
평천구역 봉화동 71인민반 김철수동무의 가정에서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준 원호물자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있다.

초소의 군인들은 우리의 친자식

평양기관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초소 일군들에게 보내준 원호물자준비물을 놓고 평양기관차대 일군들인 장수남, 김창철동무들이 트럭을 거둬고 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진호, 리준영동무를 비롯한 초소일군들이 방으로 들어서시는 것이었다.
《초소의 군인들에게 우리들이 준비한 원호물자를 함께 보내게 해주십시오.》
《초소의 일군들과 첫 인연을 맺던 그때처럼 본래있게 준비하십시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사실 이번 견학에 기관차대에서 원호물자준비를 통이 크게 하기로 계획했었다.
위대하며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료로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인생살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다.
무더운 삼복철의 피약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민군부대

구바국 가리사회 위원장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을 접견

【평양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라울 카스트로 루스 구바 공화국 가리사회 위원장, 내각 수상이 14일 블리니에서 진행된 77개집단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김창철 배부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를 만났다.
접견에서 단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뎌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 편지를 전했다.
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뎌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구바당과 정부, 인민

대고조선군을 추동하는 경제선동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예술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선군을 추동하는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투출연장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선군을 나가 여러가지 형식의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노년층, 청소년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훈창조로 추동하여야 합니다.》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정성과 이룩하고있는 각지의 협동농장들과 농업부문의 연판단위들의 전투현장에서 영화예술인들이 펼치는 공연무대는 언제나 전투장의 분위기를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넘쳐넘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얼마간 중화군과 황주군, 연관군과 사리원시에서 수만명의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여회의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였다. 경제선동활동에 참가한 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훈창조로 고무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예술인들
선예술영화촬영소의 배우들과 평양영화음악극소스의 가수들, 텔레비전극창작소의 배우들은 피약없이 내려오는 전투현장에서 매일 여러차례의 공연활동을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였다.
이들은 공연활동의 여가시간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한 영예군인가정을 방문하여 성의껏 준비한 생활용품들을 안겨주며 그가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가도록 고무해주었다.
영화예술인들은 평안남도의 여러 협동농장에서도 수일간의 공연활동으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경제선동활동은 5월 1일경장계전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연판단위들의 전투현장과도 연관하여 여러차례의 공연활동을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만영을 들은 영화

증산으로 써밀어준 금메달소식

얼마전 우리가 순천제련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을 만났을 때였다.
《생산에서의 혁신소식부터 듣고싶겠지만 이 사건을 먼저 좀 보십시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건에는 우승컵을 주켜든 두 청년이 활짝 웃고있었다.
지난 4월 네달에서 진행된 제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이곳 련합기업소태권도선수단의 라경훈, 강철우선수들이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각각 2개의 금메달을

직관경제선동 및 이동미술전시회 진행

미술품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백두산건설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채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달려나가 직관경제선동 및 이동미술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조선미술작품보급사의 보급원들은 수십점의 선진화작품들을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 전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달려나간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포적으로 나가

직관경제선동 및 이동미술전시회 진행

수십점의 혁신작품소묘를 완성하고 농촌주요계층의 작품창작에 필요한 현지습작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미술작가단의 창작가들은 청산협동농장의 여러 작업반들에 나가는 기본호들과 숙보관들을 더 훌륭하게 탄생해주어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수십점의 선진화작품들을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 전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달려나간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포적으로 나가



